

發送電事業의 變遷

— 解放前 우리나라의 電源開發事業 (8) —



崔 漢 燮

9. 鴨綠江水力の 開發

鴨綠江은 白頭山에서 發源하여 西海로 들어가는 길이 790km, 유역면적이 6萬平方km를 웃돌 뿐만 아니라 韓國측의 유역만하여도 3萬2千平方km나 되는 큰江이다.

上流에서 虛川江, 長津江을 받고 다시 中流에서 慈城江, 禿魯江, 渾江을 합쳐 西海로 들어가는데蓋馬高原을 흐르는 上流에는 落差가 크고, 中流부터는 水量이 풍부하여 典型的인 大陸河川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1) 總督과 久保田會談

1936년 9월경 長津江水電의 長津湖가 담수한 뒤에 宇垣總督이 이 長津湖畔의 山莊에 휴양차 체재하고 있었는데 이때 소위 朝鮮軍司令官인 小磯大將(위의 總督)도 찾아 왔다.

당시 長津江水力電氣(株)(社長 野口 遵)의 常務였던 久保田 豊이 이들과 同席하고 있었는데 久保田은 적당한 기회를 보아 『두분의 덕택으로 長津江水電은 준공되었다. 값싼 電氣로 北韓의 工業化도 진전되어 앞으로 電力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鴨綠江 本流에서는 數百萬kw의 電氣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개발한다면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는데 자기들에게 개발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宇垣總督과 小磯司令官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중은 계획이나 韓滿國境線이 되고 있는 河川을 개발하는데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다. 滿洲國은 關東軍의 金城湯池로 大東亞共榮圈의 꿈을 實現하는 理想郷이다. 또 關東軍은 朝鮮總督府에 대하여 協調的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계획은 꿈만 같다…」고 小磯가 말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한때 關東軍參謀長을 歷任하였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에는 밝았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는 골치 아픈 일이지만 한번 단서만 잡으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도대체 어떤 계획인가』하고 물었다. 久保田은 「權利도 責任도 韓國과 滿洲에서 각각 절반으로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양쪽에서 협동으로 개발하여 생산된 電力은 50%씩 갖는다. 자금도 50%씩 부담한다. 이런 조건이라면 滿洲에서도 異議가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久保田은 사전에 長津江水電社長인 野口의 승인을 받고 한 말이었다.

그리고 野口社長 또한 이미 이전에 滿洲國의 關係要人으로부터 많은 示唆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

나라 久保田에게 鴨綠江 本流의 개발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久保田은 그 계획의 작성에 착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宇垣와 小磯는 久保田의 설명을 듣고 「野口社長이 하겠다면 宇垣이 승락하였다고 滿洲側에 전달하라」고 승인 하였다.

이 長津江湖畔會談을 계기로 鴨綠江水電開發계획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鴨綠江本流를 개발 하겠다는 계획이나 出願은 이보다 앞서 그 이전에도 몇사람에 의하여 試圖되었고 또 韓滿間의 電力交流도 진작부터 실시되어 왔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그 歷史부터 더듬어 보기로 한다.

(2) 韓滿間 電力交流의 변천

① 新義州~安東間

鴨綠江對岸에 있는 安東은 일찍부터 開化한 都市로 電力의 수요도 많아서 新義州보다 먼저 대규모의 發電소가 건설되고 있었다. 반면에 新義州에는 新義州電氣(株)가 1913년에 설립되어 다음해 1월 市内에서 코우크스를 燃料로 하는 75kw의 發電을 개시하였으나 電力不足으로 다음과 같이 安東에서 受電했다.

- ◇ 1922년 4월 安東發電所에서 滿鮮殖産(株)를 통하여 不足電力을 受電, 1928년 까지 계속했다.
- ◇ 1928년 新義州에 汽力發電所 1,400kw를 건설 발전함과 동시에 수전을 중지.
- ◇ 1931년 新義州電氣(株)가 滿鮮殖産(株)를 매수하여 다시 安東에서 일부를 수전하였다.
- ◇ 1936년 安東(滿電)에서 3,000kw를 수전하고 新義州發電所는 豫備用으로 돌렸다.
- ◇ 1941년 水豊發電所의 준공으로 수전을 중지

② 會寧~間島省間

大邱電氣(株)의 小倉社長은 軍事上의 要衝인 咸北의 會寧에 눈독을 들여 1918년 8월 會寧電氣를 설립하여 그 지역의 石炭을 燃料로 하는 80kw와 200kw의 汽力發電所로 좋은 성과를 올렸다.

그는 1931년 9월 滿洲戰爭을 계기로 앞날 크게 발전이 예상되었던 滿洲의 東쪽 出口인 圖們과 韓國側의 入口 南陽에 대한 공급구역의 확장을 계획하여 雄基電氣(株)와 競願이 벌어졌으나 결국 會寧電氣의 승리로 돌아감으로써 그들은 豆滿江을 따라 送電線路를 건설하여 鍾城을 경유 南陽과 圖們에 電氣를 공급했다.

이와 동시에 小倉은 間島省의 龍井村과 房子街 일원을 대상으로 滿洲國 法人의 電氣會社 설립을 기도하여 맹렬한 운동을 폈으나 滿洲의 一業一社主義로 실패하자 會寧에서 豆滿江을 횡단, 送電線을 가설하여 間島省에 「當分間」이라는 條件附로 關東軍의 허가를 받아 電氣를 공급하게 되었다.

그뒤 韓國에는 虛川江水力이 그리고 滿洲에는 鏡泊湖水力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 공급은 중지되었다

③ 間島省~中江鎮間

1942년 3월 滿洲電業으로부터 中江鎮에 수전을 개시 1945년 까지 계속되었다.

(3) 鴨綠江本流開發出願의 歷史

① 町野退役少將의 出願

町野는 退役陸軍少將으로 당시 滿洲의 실권자인 張作霖의 最高顧問이었는데 鴨綠江의 水利權에 착안하였다. 朝鮮總督府에서 발행한 「朝鮮電氣事業要覽」(1923年版)에는 未開發電氣事業으로서 이 町野가 咸鏡南道知事에게 제출한 鴨綠江水力電氣(株) (자본금 1,000萬圓, 發電力 13.752kw)의 허가신청기록이 남아 있다.

② 鴨綠江水力電氣의 申請

新義州電氣(株)社長 神保信吉이 1932년 平北知事에 대하여 鴨綠江水力電氣(株)의 사업을 신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본금 570萬圓, 鴨綠江支流 豆滿江의 한 支流인 古面川에 11,781kw의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 허가가 천연되자 1935년 總督府에 北部는 野口系, 南部는 日本電力聯盟系 朝鮮電力(株)에 의하여 각각 대규모의 발전사업이 起業되어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데 유독 西部지구만 제외되고 있다고 하여 鴨綠江水電의 시급한 실현을 진정했다.

③ 南滿洲鐵道(株)의 調査

水豊보다 數10km의 上流인 碧瀾에 댐을 건설하는 案인데 滿鐵은 이미 1920年代에 調査報告書を 작성한 바 있다.

(4) 韓滿間의 正式교섭

鴨綠江本流 개발은 당시 日本에 있어서 소위 그들의 「大東亞共榮」을 위한 하나의 커다란 꿈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잠시 당시 韓滿兩國의 電力需給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韓國에는 鴨綠江水電이 개발되었을 때 이 大電力을 소화할 구체적인 大需用은 없었다. 따라서 日本窒素(株)의 野口는 어차피 200萬kw의 新電源을 대상으로 電力消費計劃을 수립하기 위한 新規工場을 건설하고자 계획단계에 있었다.

이에 反하여 滿洲側에는 이미 大連, 鞍山, 撫順, 安東등지에 需要地火電이 있어 그 대부분을 豫備 電源으로 하고 鴨綠江受電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그 電力量은 20萬kw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위의 상황은 戰爭의 확대에 따라서 韓國은 輕金屬工業이, 그리고 滿洲에는 鐵과 石炭을 中心으로 한 重化學工業이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電力消化의 걱정은 없었다.

鴨綠江水電의 소문이 퍼지자 그 豊富함과 低廉함에 이끌려 日本企業들은 앞을 다투어 韓國進出을 희망했다. 總督府에서는 이러한 申請에 대한 電力配分을 결정하는 機關으로 1937년 5월에 설립된 鴨綠江水力發電開發委員會가 이를 담당토록 하고 開發當事者인 野口系企業일지라도 이 委員會의 審의와 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鴨綠江本流開發을 위한 계획은 급속도로 진전되어 1936년 6월에는 韓滿合同으로 電源開發 調査團이 결성되어 團長以下 20명이 上流의 新駕坡鎮으로부터 船便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調査團의 調査를 토대로 總督府는 1937년도 豫算에 調査費를 편성하고 1937년 5월 12일字의 官報에 鴨綠江 및 豆滿江의 水力開發에 관한 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總督府에 朝鮮總督府鴨綠江開發委員會를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① 鴨綠江 및 圖們江發電事業에 關한 覺書

鴨綠江水力發電(株)의 創立에는 國際河川에서의 發展事業인 관계로 滿洲國과 朝鮮總督府 사이에 政式議定書의 調印이 필요하였으므로 1937년 8월 23일 滿洲國産業大臣과 朝鮮總督府政務總監 사이에 다음과 같은 覺書에 調印이 이루어졌다.

1. 日本國當該官憲은 朝鮮 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以下 甲이라고 함)에 대하여 그리고 滿洲國當該官憲은 滿洲國鴨綠江 水力發電株式會社(以下 乙이라고 함)에 대하여 鴨綠江 및 圖們江 各本流에 의한 右兩者의 發電事業의 共同經營을 허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日滿兩國當該官憲이 각각 甲社 또는 乙社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發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甲社 또는 乙社의 決議의 取消 및 任員의 해임과 다음 各號에 대하여 認可 또는 許可의 처분을 할 경우에도 역시 前項과 같다.

- (1) 共同經營約定의 체결 및 변경
- (2) 定款의 설정 및 변경
- (3) 他事業兼營 및 投資

- (4) 社長(理事長) 및 常務取締役(常務理事)의 他事業 從事
- (5) 役員의 選任과 解任, 利益金の 처분, 社債의 모집과 合併 및 解散의 결의
- (6)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
- (7) 共同事業의 計算
- (8) 重要재산의 讓渡 및 担保權 설정

3. 日滿兩國의 當該官憲은 제 1조에 규정하는 發電事業의 시설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日滿兩國의 當該官憲은 각각 自國領域내에 있어서 甲乙兩社의 電氣事業에 公益上 또는 電力統制上 필요한 명령을 發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야 한다.

다음 각호에 대하여 인가 또는 허가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역시 前項과 같다.

- (1) 電力供給契約의 체결 및 변경
- (2) 重要 電氣工作物의 시설 및 변경

5. 日滿兩國의 當該官憲은 甲乙兩社의 事業의 讓渡를 허가할 수 없다. 但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를 허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해야 한다.

6. 日滿兩國의 當該官憲은 각각 自國領域내에 있어서 各社에 대하여 보고를 접수하거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호 통보해야 한다.

7. 日本國當該官憲은 甲社로 하여금 그리고 滿洲國當該官憲은 乙社로 하여금 각각 다음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1) 甲乙兩社의 자본금은 항상 同額토록 할 것.
- (2) 甲乙兩社는 각각 그 자본금의 2분의 1 상당액의 株式을 相對國측의 株主가 소유토록 할 것
- (3) 甲乙兩社의 각 株主로 하여금 甲乙兩社의 株式을 同數씩 所有토록 할 것
- (4) 甲社 또는 乙社의 각 任員은 동시에 각각 乙社 또는 甲社의 同一 任員이 되도록 할 것
- (5) 各社의 자산 및 부채는 兩者의 共有토록 할 것
- (6) 各社의 사업경영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各社에 均등하게 배분할 것

8. 甲乙兩社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기한은 만 35년으로 한다. 但 日滿兩國의 當該官憲은 各社의 신청에 의하여 협의한 다음 이를 연장할 수 있다.

9. 日滿兩國의 當該官憲은 제 1조에 규정하는 甲乙兩社의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電力을 朝鮮 및 滿洲國에 대하여 각각 定한 周波數에 의하여 原則적으로 2분의 1씩 同一條件으로 공급토록 한다. 但 그 비율은 日滿兩國當該官憲이 협의한 다음 변경할 수 있다.

(5) 朝鮮 - 滿州鴨綠江水力發電(株)의 설립

總督府와 滿洲사이에 공동으로 鴨綠江本流를 개발하는데 합의는 하였으나 鴨綠江水電會社의 本社를 서울에 두느냐 滿洲의 新京(지금의 長春)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로 쌍방이 양보를 하지 않아 어려운 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1937년 1월 東京에서 野口, 久保田, 關東軍의 國分參謀, 滿洲國實業部次長 岸信介(戰後 日本首相歷任) 등 4者會談에서 野口의 제안에 따라 兩側에서 각각 發電會社를 설립하여 株主와 任員은 同一人으로 하고 개발사업은 兩社의 共同事業으로 하며 韓國은 서울에 그리고 滿洲는 新京에 本社를 두는데 합의하여 1937년 8월 18일 각각 자본금 5千萬圓의 朝鮮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와 滿洲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가 설립되었다.

이들 두 會社의 社長(滿洲側은 理事長)에는 野口 遵, 그리고 常務에는 久保田 豊과 滿洲側의 陳 悟가 취임하였는데 사업의 실권과 실무는 野口系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두 鴨綠江發電會社를 두고 一卵性쌍둥이 또는 雙頭뱀이라고 불렀다.

〈丑-1〉 朝鮮·滿州鴨綠江發電(株)의 株式狀況

設 立 時			終 戰 時		
出 資 者	出 資 額	比 率	出 資 者	出 資 額	比 率
朝鮮水力	2×1,500萬圓	30%	朝鮮電業	2×6,250萬圓	50%
東洋拓殖	2×1,000萬圓	20%			
韓國側	2×2,500萬圓	50%	滿州電業	2×6,250萬圓	50%
滿州國	2×2,500萬圓	50%			

(6) 鴨綠江本流開發事業의 概要

長津江水電에서는 이미 1936년 11월以來 鴨綠江本流의 名地點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제 1 기공사地點으로 水豊을 선정한다는 構想下에 다음해인 1937년 5월에는 본격적인 조사반을 파견하여 측량과 地質조사를 개시했다.

같은해 6월에는 野口社長과 久保田常務등이 현지를 시찰하고 10월에는 請負業者인 間組, 西松組등이 현장에 진출, 공사에 착수했다.

또 그동안 會社에서는 법의 실제, 시공계획을 참고하기 위하여 美國의 플드넘과 그리랜드푸리법에 土木技師와 機械技師등 3명, 건설업자인 間組과 西松組 그밖에 石川島造船등을 합쳐 총원 9명을 파견했는데 1937년 9월에는 대체적인 基本設計를 완료하였던 것이다.

제 1기 工事地點으로 水豊地點案을 결정한 것은 滿鐵의 제 1기 碧澄地點案에 대하여 朝鮮鴨綠江水電側은 공사를 급속히 시공하는 관계상 교통수송 및 설제시공상의 여러문제를 종합검토한 끝에 水豊이 최적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水豊댐은 鴨綠江本流를 가로질러 축조되어 平安北道朔州郡九曲面水豊洞에서 滿州國安東省寬甸縣碑碣子溝에 이르는 길이 약 900m, 높이 약 106m, 容積 약 323萬立方미터이며 댐에 의해 造成된 貯水池는 上流에 있는 謂原에 이르는 길이 165km, 總貯水容積 116億톤, 有効貯水容積 76億톤의 大人口湖水 이다.

發電은 100m의 落差와 평균 秒當 660톤의 使用水量으로 댐내에 설치된 7條의 鐵管路에 의하여 1台 10萬kw로 最大出力 70萬kw를 발전하는 당시 世界 屈指의 큰 시설이었다.

1호기의 試運轉은 1941년 8월 부터 시작되어 같은해에 1·2호기가 모두 완성됨에 따라서 1호기는 8월 26일 부터 60헤르쯔로 韓國側에 그리고 2호기는 9월 1일 부터 50헤르쯔로 滿洲側에 송전을 개시했다.

水豊발전소는 당초 10萬kw發電機 7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1, 2, 3, 6, 7호기의 5대는 日本 東芝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4, 5호기는 독일의 지멘스社에서 제작하였으나 이 가운데 독일의 5호기는 戰爭으로 끝내 도착하지 못하고 6대만이 1944년 2월까지 모두 준공하였다.

(7) 蘇聯軍의 施設撤去

1945년 9월 蘇聯軍 몇명이 水豊發電所에 와서 發電所의 接수를 선언하고 이때부터 발전소의 운영은 北傀側의 管理下에 들어갔다. 같은 해 11월 上旬 돌연 蘇聯軍 약 1,000명이 水豊에 들어와서 7대의 水車와 6대의 發電機중 水車 3대, 發電機 2대를 3주간에 걸쳐 解体撤去해 갔다.

戰爭으로 파괴된 그들의 本國 발전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뒤 이 水豊발전소는 6·25동란등으로 많이 파괴되었으나 1958년 소련의 원조로 완전히 복구되었고 1960년 朝·中鴨綠江水力發電會社를 설립하여 中共과 공동운영하고 있는데 中共側에는 30萬kw 내외를 송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속)